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9. 8. 30.(금)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 과장 송종준, 사무관 김정식, 주무관 조용훈 • ☎ (044) 200-5870, 5878, 5881		
보도일시		2019년 9월 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근대문화유산과 환상적인 낙조가 있는 ‘목포구등대’

- 해수부, 9월 이달의 등대로 ‘목포구등대’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이달의 등대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목포구등대’를 선정하였다.

목포구(木浦口)등대는 해남군 화원반도 북쪽 끝자락에 있는 등대로 위치는 해남이지만 목포항 어귀에 설치되어 ‘입구 구(口)’자를 써서 ‘목포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등대가 있는 화원반도와 달리도라는 섬 사이의 좁고 굴곡진 항로는 지형의 영향으로 물살이 거세 목포항을 이용하는 선박에게는 매우 위험한 항로이다. 그래서 1908년 7.2m 높이의 등대를 설치하였으나, 대형 선박들의 통항이 잦고 등대가 노후 됨에 따라 2003년 36.5m 높이의 등대를 옆에 새로 건립하였다.

95년 동안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옛 목포구등대는 현재까지도 원형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시대 건축양식 연구를 위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2008년 7월 ‘등록 문화재 제379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새롭게 건립된 등대는 ‘힘차게 항해하는 범선을 형상화’한 독특한 모양으로 서해바다의 환상적인 낙조와 함께 등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등대관련 장비용품, 국내외 등대모형, 선박조종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등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지방에서 전승되어온 민속놀이를 역동적인 모습

으로 표현한 ‘강강술래’, 목포의 상징인 세 마리의 학을 표현한 ‘삼학도’ 등의 조형물도 설치하여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흥사’, 다도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두륜산 케이블카’, 400여점의 공룡화석이 전시된 국내 최대 ‘공룡 박물관’ 등 유명관광지가 등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7일부터는 우수영 일대에서 임진왜란 명량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2019 명량대첩축제’가 열려 명량대첩 재현, 만가행진, 북 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므로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기회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올해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통해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경우 매 100번째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또한 ‘이달의 등대’ 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참여하기’에 남기면, 추천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탐방할 수 있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1명, 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 등대 탐방을 위한 왕복 항공권 및 승선권(1명, 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방법, 도장 찍기 여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www.lighthouse-museum.or.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목포구등대(木浦口燈臺)』

목포구등대는 해남군 화원반도 북쪽 끝자락에 있는 등대로 위치는 해남이지만 목포항 어귀에 설치되어 '입구 구(口)' 자를 써서 '목포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등대가 있는 화원반도와 달리도 사이 좁고 굴곡진 항로는 지형의 영향으로 물살이 거세 목포항을 이용하는 선박에게는 매우 위험한 항로이다. 그래서 1908년 높이 7.2m의 등대를 설치하였으나, 대형 선박의 통행이 잦고 등대가 노후함에 따라 2003년 높이 36.5m의 등대를 옆에 새로 건립하였다.

95년 동안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옛 목포구등대는 현재까지도 예전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제국 시대 건축양식 연구를 위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2008년 7월 '등록문화재 제379호'로 지정하여 보존되고 있다.

새로 건립된 등대는 '쉽차게 항해하는 범선'을 형상화한 독특한 모양으로 시해의 환상적인 낙조와 함께 등대를 찾는 방문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등대 관련 장비, 국내의 등대 모형, 선박조종체험시설 등을 설치해 등대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지방에서 전승되어온 민속놀이를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강강술래', 목포의 상징인 세 마리의 학을 표현한 '삼학도' 등의 조형물도 설치해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주변관광지 · 축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종사', 다도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두륜산 케이블카', 400여 점의 공룡화석이 전시된 국내 최대 '공룡박물관' 등 유명관광지가 등대 주변에 위치하며, 오는 9월 27일부터는 우수영 일대에서 임진왜란 명랑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2019 명랑대첩축제가 열려, 명랑대첩 재현, 민가행진, 북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19. 1. 1~12. 31.)

1. SNS 포스트잇 이벤트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를 남기면 무제한 경품이 팽팡
경품 : 국내 및 세계 등대문화유산 탐방경비 지원
(스페인 왕복항공권 2매 등)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스마트폰에 『이달의 등대』를 모으자! 매 100번째마다
스탬프를 찍으신 참여자 및 스탬프 투어(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관련 기념품 제공

참여방법

STEP1 구글 스토어 or 앱 스토어 접속 ▶ STEP2 '스탬프 투어' 검색 후
다운로드 ▶ STEP3 이달의 등대, 스탬프 투어 앱 실행
※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포스트잇 이벤트
자세히 보기



스탬프 투어